

조기위암에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과 개복술의 무작위 전향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재혁, 이주호, 한호성

(배경 및 목적) 최근 조기위암 환자에서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의 장점이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저자들은 조기위암 환자에서 무작위 전향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개복술과 비교하여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의 단기적 치료 성적과 유용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외과에서 수술 전 내시경 검사 상 전정부와 체부의 조기위암으로 진단된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23명의 환자에게는 개복술(O군)을 24명의 환자에게는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L군)을 시행하였다. 두 군 모두 D2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한 근치적 허부 위아전절제술과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두 군간의 수술 시간, 추정 실혈량 및 수혈량, 수술 후 회복 정도(장운동 회복일 및 첫번째 식사일, 진통제 투여일, 백혈구 수치, 혈청 단백치, 수술 후 재원일), 절제된 림프절 개수, 합병증 등을 비교 하였다.

(결과) 두 군 간에 연령, 성별, 체중, 동반질환, 복부수술의 기왕력, 병변의 위치, 조기위암의 육안적 분류, 병변의 크기, 분화도에 차이는 없었다. 조직병리검사 상 O군은 모두 조기위암이었고(m 13예, sm 10예), L군에서는 21명이 조기위암이었으며(m 14예, sm 7예) 진행성위암이 3예 있었다(pm 2예, s 1예). 평균 수술 시간은 O군이 190.4분, L군이 319.6으로 O군이 유의하게 짧았으며, 추정 출혈량 및 수혈량에는 차이가 없었다. 수술 후 장운동 회복일,식이 시작일 및 재원일수는 L군이 짧은 경향을 보였으며, 수술 후 평균 진통제 투여일 역시 L군에서 적은 경향을 보였으나(8.1일 vs 4.5일) 통계적인 유의성은 얻지 못하였다. 절제된 림프절 개수의 평균치는 O군이 38.1개, L군이 31.8개로 O군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98$). 수술 후 흉부 방사선 사진 상의 폐 합병증은 L군이 7예, O군이 2예로 O군이 유의하게 적었다($p=0.043$). 현재까지 두 군에서 재발한 예는 없었다.

(결론) 조기위암에서 복강경 보조 위절제술은 개복술에 비해 수술 후 폐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으며 림프절 절제 등의 근치적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무작위 전향적 연구의 중간 보고로 향후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며 장기 생존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